

독일 베를린시의 연방위해평가연구센터를 다녀오면서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영양정책팀장

2006년 4월 18일 화요일에 독일의 식중독 발생 및 관리 현황과 최근 식품안전분야에서 국제적 화두가 되고 있는 위해분석(Risk Analysis) 수행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베를린시에 위치한 연방위해평가연구센터(BFR: Bundesinstitut fuer Risikobewertung) 등 방문을 일정으로 출국하였다.

베를린시는 독일의 수도로 과거 동독지역에 위치해있고, 국제공항이 없어 인근 도시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야한다.

한국은 이미 겨울 색이 사라진 터였지만 베를린시는 아직 아침저녁 온도가 우리 나라보다 3~5℃정도 낮아 세탁을 맡기려던 겨울 옷을 챙겨들고 스위스의 취리히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베를린시에 가기 위해 환승하는 주요 인근 도시로는 거리상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시가 가장 가깝지만 이번 출장에서는 환승시간이 짧은 스위스의 취리히 공항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인천공항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하였는데 취리히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6시경이었다. 절

대 시간으로는 약 12시간이 지났으나 현지 시간으로는 5시간 만에 도착하였으니 12시간의 피로를 5시간의 피로로 줄여 몸을 추슬러야 했다.

취리히 국제공항에 도착할 때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스위스의 풍경은 낮고 연두색의 언덕과 구획이 잘된 집, 도로 등이 어우러져 매우 평화스러워 보였다.

취리히 국제공항도 다른 국제공항처럼 1,2층 사로 나뉘어져 있었고, 늦은 오후라서인지 공항은 한가했다. 프랑스어를 제2외국어로 공부한 필자로서는 독일어 안내판이 생경하였으며 내가 우리나라에서 매우 멀리 와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수속을 마치고 정해진 31번 gate 앞에 앉아있자니 주변 gate에서 파리, 헤이그, 베네치아 등 유럽의 여러 시로 출발하는 비행기가 시간대별로 이륙하고 있어 취리히가 유럽 교통의 중심 도시인가 싶었다.

여행객 차림의 손님도 있었지만 주로 정장차림의 승객이 많이 눈에 띄었다.

취리히 공항을 출발하여 약 1시간 30분의 운항 도중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베를린 공항

에 도착하여 짐을 찾고 호텔로 가기 위해 공항을 나갈 때는 이미 저녁 10시가 넘었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베를린 시내에 공항과 가까운 편이라서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약 30분 후에 예약된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다. 호텔 로비는 어두운 감을 주었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넓지 않은 호텔 로비에는 간편 복장인 한무리의 남자들이 투박한 독일어로 유쾌한 듯 이야기하고 있었다. 해외 출장시 며칠간 체류할 호텔에 도착하면 항상 느끼는 생경함이 호텔 직원과 주변 사람들의 생김새와 언어의 상이함으로 한층 더한 것 같았다. 차츰 익숙해지겠지. 7일 동안 지내야 할 방을 정하고 짐을 정리하고 나니 12시가 지나서 새날이 되었다.

첫째 날

잡자리가 바뀌어서인지 잠을 설치고, 아침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호텔에서 제공하는 아침 식사(뷔페식)를 먹기 위해 7시 30분경에 1층에 위치한 뷔페식당으로 내려갔다. 내 방은 3층이고 호텔 건물은 총 5층이었다.

식당 안은 북적거렸고 자리를 찾기 위해 휘휘 돌아본 식당내 사람들은 거의 노년층이었다. 정말이지 젊은 사람은 한명도 찾아 볼 수 없었고, 중년층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특히 동양인은 남녀노소를 통틀어 필자 혼자였다.

차려진 식사는 독일답게 소시지류가 많았고,

닭고기 튀김, 각종 빵류와 요구르트 등 유제품류 및 치즈, 과일류 등 전형적인 서구식이었다.

커피는 아예 보온병에 넣어 각 테이블마다 제공되고 있었고, 뷔페식당임에도 불구하고 식당 밖에는 커피를 외부로 갖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와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호텔 정문 앞에는 단체 관광객용 버스가 2~3대 정차해 있었고, 식사를 마친 노인들은 구부정한 자세로 삼삼오오 정해진 버스에 올랐다. 식당은 한순간에 고즈넉해졌다.

창가에 자리를 잡고 여유를 즐겼다. 오늘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다.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독일인의 체격은 남녀 모두 키가 컸고, 대부분 살집이 있어보였다. 가죽 재킷을 입은 사람부터 면셔츠만 입은 사람들까지 옷차림이 다양하여 날씨와 유행을 가늠할 수 없게 하였다.

호기심과 조급함으로 식사 후 바로 호텔 밖으로 나왔다.

호텔주변은 베를린 시내권이지만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통행인이 적어 한적한 느낌을 주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날씨는 따뜻했다. 긴팔 면셔츠 하나만 입고도 호텔 주변 산책이 가능하였다. 입고 있는 겨울용 옷 바지가 두껍게 느껴졌다. 오호 애재라! 어찌 일주일을 지내리요. 내가 준비해온 겨울용 반코트와 재킷, 목까지 올라오는 스웨터는 도저히 입을 수가 없겠으니 말이다.

시내구경 겸 옷을 사기 위해 호텔을 나섰다. 호텔에서 5분 거리에 유럽에서 가장 크다는 KaDeWe 백화점을 위시하여 쇼핑을 할 수 있는

시내거리가 시작된다.

호텔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꺾어지니 공식일정에 방문하기로 한 Kaiser 유통계열의 조그만 슈퍼마켓이 영업 중이었는데 상점 앞에는 팬지, 튜립 등 여러 가지 꽃모종이 진열되어있고, 또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베를린 시내 중심의 한 슈퍼마켓에서 꽃모종을 보리라고는 예상 못했던 일로 어딘지 무뚝뚝해 보이는 독일인을 다시 생각하게 하였다.

주변 카페는 야외용 의자와 식탁을 상점 앞에 정리하고 있었으나, 아직은 점심식사하기에 이른 시간이라서인지 손님은 거의 없었다.

인근의 전철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대로로 나오니 2층 버스가 눈에 들어왔다. 자세히 살펴보니 시내 관광용과 정기 노선버스의 두 종류가 있는데 관광버스는 이층에 지붕이 없는 것, 반만 덮은 것, 지붕이 애당초 설치되어 있는 것 등 다양하였다.

베를린시의 교통요지인 초역 쪽으로 걸어가면서 마주친 많은 독일인은 청바지 차림의 무척 검소하고, 유행을 따르지 않는 개성적인 모습이였다.

대로변을 20여분 걷는 동안에도 볼 수 있는 광경은 신문 등을 팔기 위해 설치된 2~3개 가판대에서도 봄을 알리는 화분과 꽃모종을 팔고 있는 것이었다. 정말 독일인은 꽃을, 봄을 좋아하나보다.

봄옷을 사기 위해 쇼핑센터에 들어가 이것저것 살펴보니 중국산 제품이 넘쳐난다. 위기의식

이 느껴졌지만 내가 고른 옷도 중국산이었다.

둘째 날

오늘은 베를린에 온 가장 큰 목적인 독일 연방위해평가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날이다. 3일간 방문하도록 일정이 잡혀있다. 시 외곽에 위치한 평가센터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기로 하였다. 호텔이 위치한 반대 방향의 시내권을 통과하여 택시는 좌측통행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시내의 중앙화단에는 여러 색의 튜립과 보라색 아이리스가 피어있었고, 길가에는 노란 개나리가 만개해 봄을 느끼게 하였다. 한국을 떠나올 때 환송해주던 개나리를 이곳에서 보게 되니 공연히 베를린시가 가깝게 느껴졌다. 또한 수령이 있는 굵은 아릅드리나무가 길 대로변에 죽심어져 있어 도시의 역사성을 말해주고 있었으며, 눈에 필 정도의 고층 건물이 없이 스카이라인이 안정되어 평화로움도 함께 주고 있었다.

평가센터를 가는 도중에 버스와 택시는 종종 볼 수 있었으나 전철역사는 볼 수 없었다.

택시비로 20유로(우리나라 돈으로 약 4만 8천원)를 내고 평가센터에 도착하였다. 이미 연락이 되어서인지 수위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주고 본 건물로 안내해 주었다. 평가센터는 넓은 대지에 5층 이상의 서너 개 건물로 구성되어 규모면에서 우리 연구원의 서너 배는 되보였다. 역시 개나리가 이곳, 저곳에 만발해 있었고, 팬지와 튜립도 화사하게 피어있었다.

1층까지 내려와 나를 맞아준 Dr. Juliane Braunig는 독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유창하였으며, 긴 머리에 체격이 컸다.

평가센터 본관은 방사형으로 지어져 있어 Dr. Juliane Braunig의 안내로 3층에 위치한 회의실을 찾아갈 때 마치 우주선 속에 들어온 것 같았다.

오전 중에는 Dr. Juliane Braunig로부터 평가센터의 조직, 역할, 업무 등에 관해 주로 들었다. 평가센터는 1994년에 독일 연방정부가 설립 의의를 시작하여 2002년 11월 1일에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약 6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이중에 과학자(전문가)는 250명이라고 하였다. 연방정부가 출연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방정부기관으로 Food Safety, Biological Safety, Chemical Safety, Product Safety, Risk Communication 분야로 나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의 객관성,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식품 등 관련 민간기업체와의 공동 연구는 금지하는 한편 대학과의 협력연구는 허가하고 있고, 각 분야별 연구 및 실험보고서를 연방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연방위해평가센터와 함께 위해평가의 양대 산맥인 연방위해관리센터(BBL)는 지난 4월 1일 독립하여 사무실을 옮겼다고 하였다.

오후에는 Dr. Annemarie Kasbohrer와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 수준과 식중독 발생 및 관리 현황, 독일내 식품관련업체의 HACCP 추진 실적 등을 논의하였다. 독일의 식중독 발생률은

2004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3.21명으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영국의 0.09명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라 식중독 발생률 감소를 위해 여러 연구와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HACCP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다 적용하고 있으며, 사후감시는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셋째 날

오늘도 10시에 평가센터에 도착하니 벌써 낮이 익은 수위 아저씨가 반가워해 주었고, 혼자 본관 건물까지 걸어갔다.

오전에 수의사인 Dr. Thomas Alter를 방문하여 독일의 식중독 관리 방안에 관해서 논의하였다. 요즘 독일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해미생물분석은 살모넬라(Salmonellosis), 캄필로박터(Campylobacteriosis), 대장균(E.coli)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독일의 음식 소비 패턴과 무관하지 않으니 즉, 육류 및 가공류를 다량 섭취하기 때문으로 이는 호텔의 아침 뷔페식단에서도 닭고기가 빠지지 않고 제공되는 등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었다. 상대적으로 섭취가 적은 해산물과 관련된 장염비브리오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식품, 사료, 화장품, 포장용기, 담배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흡연자가 많은 베를린시의 사회현상과 무관

해 보이지 않았다.

오후에는 Dr. Petra Hiller와 만나 유럽 전역의 식품안전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유럽은 EU내에 EFSA라는 식품관련 조직을 설치하고, Rapid Alter System 이라는 공동의 식품안전전산망을 구축, 가동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럽 전역의 식품안전을 지키고 있었다. 여기서 제공되는 식품안전 정보를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검색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Dr. Petra Hiller가 다소 놀라는 눈치였으나 우리나라 IT 산업의 발전을 고려할 때 가능한 일이라 수긍하였다.

유럽의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EFSA 본부는 이탈리아에 있고, 관련 회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각국은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고 하였다.

식품안전에 관련된 국가별 주요 전문성을 보면 독일은 실험분석, 네덜란드는 살모넬라 연구, 스웨덴은 캄필로박터, 영국은 수산물, 아일랜드는 수의학에 탁월한 업적과 기술력이 있다고 한다.

EU 출범에 의한 유럽의 모든 식품 기준, 규격은 강화되고 적용이 요구되고 있어 식품안전 수준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남북통일에도 관심을 보인 Dr. Petra Hiller의 진지하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주고 싶어 하는 성실한 태도로 어제보다 거의 40분 늦게 콜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데 호텔 근처 전철역 주변의 공터에 흰색 차양이 쳐진 오픈마켓이 서

있었다. 미리 내려 둘러보니 채소, 과일, 조리식품, 장신구, 꽃과 꽃모종, 의류, 치즈, 빵, 소시지류 등이 팔리고 있었는데 음식류는 진열상태, 포장재 등이 다소 불결해 보였지만 사람들은 잘 사먹고 있었다. 한국이라면 필자도 보라색 아이리스를 한 다발을 샀을 것이다.

넷째 날

토요일이다. 워낙 휴일이지만 조금히 마쳐야 하는 실험 프로젝트가 있어 출근한 Dr. Bemd Appel의 안내로 실험실을 방문하였다.

실험실은 연구실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벽과 바닥은 물론 전체적으로 정리정돈 잘된 청결한 상태였고, 기자재도 최신 기기처럼 보였다.

독일의 실험실 관련 인프라는 유럽 최고로 꼽히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실험실은 연방위해관리센터(BBL)에도 있다고 한다. 실험실에서는 평가센터 자체 실험과 독일 연방정부 및 EU 주요 회원국 등이 의뢰한 실험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업체의 의뢰는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기관의 실험 결과는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에서 인정받고 있어, 화학적 실험(Chemical Test)은 거의 실시하지 않고, 살모넬라, 캄필로박터, 이콜라이 등 주요 식중독 원인균에 관한 미생물학적 실험 등 심층실험만 주로 하는데 해마다 지급되는 실험실 예산이 충분치 않아 하고 싶은 실험을 마음껏 수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다섯째 날

오늘은 일요일이다. 시내 관광과 쇼핑을 하기로 작정을 하였는데 계획의 반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베를린시의 모든 상점이 일요일은 영업을 안하고, 단지 관광품을 파는 소규모 상점만이 영업을 한다니 시내 관광이나 하는 수밖에 없었다.

버스를 이용한 베를린 시내 관광은 과거 동독 지역까지 포함하여 약 2시간이 소요되며, 베를린시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독일인도 관광을 많이 오는 관광 도시란다. 그래서인지 선글라스를 멋있게 끼고, 2층 버스에 앉아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달리는 버스에 지붕이 없으면 다소 춥다는 것을 이미 미국의 시카고(Chicago)시 출장 때에 체득하여 지붕이 달린 노란색 2층 버스를 선택하였다. 손님이 적어서인지 영어와 독일어로 녹음된 정형화된 안내 방송만 들려주는 것으로 관광 명소에 대한 설명을 대신해 버스 출발 전에 제공한 영문판 안내 책자에만 의존한 시내 관광이 되었다.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았던 분단의 벽은 이제 낙서투성이의 일부만 남아 관광객을 맞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과거 서독 지역을 벗어나 동독 지역으로 들어서니 거리가 다소 음침한 느낌을 주었고, 대로변

에는 소규모 관광 상품 가게와 음식가게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버스와 배를 이용한 관광객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곳에서 버스는 약 20분간 정차하였고 그동안 주변 관광 상점에서 월드컵 기념 면서츠를 샀다.

아직 4월이라서인지 이곳에서도 월드컵 분위기는 크게 느낄 수 없으나 시내 이곳, 저곳에서 분주히 관련 조형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보면서 베를린시가 월드컵 개최도시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호텔과 평가센터를 오가면서 느꼈지만 특히 시내 관광을 하면서 보니 베를린 시내는 공원과 녹지대가 많고 잘 관리되어 있으며 더불어 시내를 흐르는 강과 함께 여유롭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다.

여섯째 날

주말을 지내고 베를린에서 처음 맞는 월요일이다. 오늘 일정은 카이저 유통이 운영하고 있는 카이저 마켓을 견학하는 것이다. 호텔 근처에 있는 작은 점포를 몇 번 가봐서인지 회사로고가 익숙했다.

평가센터와 호텔 중간쯤에 위치한 대형 마켓에 들어서니 입구에 채소류와 과일류가 제품에 따라 상온 및 냉장 판매대에 분리되어 진열되어 있었다. 그중에 크고 탐스러운 망고와 커리플라워가 눈을 끌었는데 독일 남부에서 재배된다고

하였다.

각 냉장, 냉동 진열대마다 온도계가 설치되어 현재의 보관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육류 판매대를 보니 정말 다양한 종류의 소시지 및 햄류가 진열되어 있었는데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또한 과자류 판매대에는 초콜릿 제품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보였고 값도 저렴하였다. 일부 초콜릿은 50% 바겐세일까지 하고 있어 토끼모양의 초콜릿 값은 단 1유로에 불과하였다.

제품의 안전성 확보(유통기한과 적정 보관 온도 유지 등)와 시의 적절한 판매 전략으로 재고품을 줄이는 것이 카이저 유통의 기본 원칙이다.

사실 요즘 해외 여러 선진국을 다녀 봐도 식품의 보관, 진열상태에 그리 놀라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식품유통산업의 수준이 외국 못지않기 때문이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닐로 만들어진 쇼핑백을 팔고 있었고, 천으로 만들어진 것도 같이 판매하고 있었다.

내일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외국 출장시 항상 느끼는 감정이지만 출장 마지막 날로 가까워질수록 점차 익숙해진 현지 사정에 그럭저럭 적응하고 있으면서도 가족과 친지들이 보고 싶고, 한국 음식이 먹고 싶고, 한국어 신문이 보고 싶어진다.

마지막 날

취리히시로 출발하는 시간이 오후 6시 경이라 시간적 여유가 많았다. 베를린시는 외국인이 구매한 모든 제품에 면세를 해 공항에서 세금을 환불해준다고 한다. 그간 구매한 제품의 영수증을 잘 챙겨 해당 상점에 가서 면세를 위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오후 2시에 체크아웃하고 점심도 먹을 겸 호텔을 나섰다. 주변 빵가게에는 각종 소시지와 햄을 얻은 샌드위치와 여러 종류의 빵이 먹음직스럽게 진열되어있지만 매일 아침 식사로 먹어 서인지 손이 가지 않았다.

야외 카페에는 날씨도 청명하고 오후시간이라서인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빼곡하였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몇몇 젊은 여성은 일광욕이라도 하듯 벌써 민소매의 목이 많이 파인 옷을 입고 앉아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먹으면서도 다른 한손에는 담배를 피워 물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니 독일이 니코틴의 인체 위해를 시급히 연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지만 흰 피부가 귀공자 같은 젊은 택시 운전사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다. 도착할 때는 밤이어서 주변 경관을 볼 수 없었는데 출발하는 지금은 한낮이라 길가에 세워진 독일의 아파트, 조경 등을 구경할 수 있었다. 시내 관광시에 느꼈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항까지의 택시비가 15유로이니 이번 독일

출장에서 지불한 총 택시비가 거의 200유로로 총 출장비중 교통비 지출이 과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공공교통수단을 타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공항 내에 있는 세무관련 기관에서 40유로를 환불받았다. 공돈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으나 그런 기분도 잠시였다. 취리히로 가는 비행기가 약 30분 연착을 한다는 것이었다. 올 때와는 달리 갈 때는 비행기 환승 여유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밖에 없는데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러다가 제시간에 집에도 못가고 취리히 공항에서 노숙자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

서울행 비행기가 출발하기 30분 전에 취리히 공항에 도착했다. 환승자 안내요원에게 물어

뛰어가려는데 고맙게도 항공사 직원 2명이 마중을 나와 친절히 안내해 주었다. 이미 서울행 비행기의 자리도 창가로 예약해 놓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짐은 가능한 옮겨 싣도록 하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다른 비행기로 운반하여 1~2일 후에 집까지 배달해 준단다. 직원전용의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삼시간에 필요한 탑승 절차를 마치고 출발 10분 전에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지금도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어둑해진 취리히시를 비행기가 출발하고 있었다. 반갑게도 승무원이 한국어판 신문을 가져다주었다. 지난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GSST**